

2021국가직 9급 국어 나책형 재미있고 아주 자세한 해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 1.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

-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난
- ③ 오뚝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 ④ 차간(車間), 화병(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X) → 꼭**짓**점

☺**영보이 암기법**: 나도 돌나물 먹을래. / 지금 하는 **짓**이 꼭**짓**점 댄스? / **페**인트를 **페**트 병에 넣어라. / 낚**시**꾼한테 **시**집가면 **회**는 마음껏 먹지.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난** (O)

☺**영보이 암기법**: **고**랴**주**의 흡입**량** / **양**한테 구름**양**을 물어봐. / 정답**란**에 임**진**왜**란** 이라 써봐. / **붓**이 없어 **난**초로 칼럼**난**을 작성한다.

③ 오뚝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X) → 딱**따**구리

☺**영보이 암기법**: 오뚝**2**-오뚝**이** / 싸라기**로** 싸**대**기 / 수**석**했다고 법**석** / 딱**지**를 잘 **따**는 딱**따**구리

④ 차간(車間), 화병(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X) → 화**병**(火病)

☺**영보이 암기법**: **ㅅ**(시옷) 모양의 **차**간 / **화**요일에 **화**병이 심해. / 하나, 둘, 셋 우리 셋방에서 빨리 방 **빼**라. / **곳**간은 어떤 **곳**이니?

정답: ②

문 2. ㉠의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2)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싼다.

- ①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
- ② 사람들은 붓짐을 싸고 산길로 향한다.
- ③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싼 보통이를 들고 있다.
- ④ 내일 학교에 가려면 책가방을 미리 싸 두어라.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2)

※ 싸다: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씩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

예1.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싸다.

예2. 철 지난 옷을 보자기에 싸서 다락에 넣어 두었다.

예3. 형사는 내가 쓴 원고 문치를 비롯해서 몇 권의 책을 싼 보통이를 들고 있었다. <<이병주, 행복어 사전>>

예4. 조 중사는 잠시 박 중사를 바라본 뒤 시계를 주섬주섬 하얀 손수건에 싸기 시작했다.

◆ 친구에게 줄 선물을 예쁜 포장지에 ㉠싼다.

◆ 싸다: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씩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

①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싸고 있다.

◆ 싸다: 어떤 물체의 주위를 가리거나 막다.

② 사람들은 붓짐을 싸고 산길로 향한다.

◆ 싸다: 어떤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좋게 상자나 가방 따위에 넣거나 종이나 천, 끈 따위를 이용해서 꾸리다.

③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싼 보통이를 들고 있다.(O)

◆ 싸다: 물건을 안에 넣고 보이지 않게 씩워 가리거나 둘러 말다.

④ 내일 학교에 가려면 책가방을 미리 싸 두어라.

◆ 싸다: 어떤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좋게 상자나 가방 따위에 넣거나 종이나 천, 끈 따위를 이용해서 꾸리다.

정답: ③

문 3.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3)

- ①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
- ②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 ③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 ④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3)

① 날씨가 선선해지니 역시 책이 잘 읽힌다.(O)

◆ ‘읽히다’는 ‘읽다’의 피동사로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② 이렇게 어려운 책을 속독으로 읽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다. (X) → 속독하는 것은

◆ 속독(速讀): 책 따위를 빠른 속도로 읽음.

◆ ‘讀(읽을 독)’은 ‘읽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위 문장은 의미가 중복되어 쓰였다.

③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기보다는 직접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X) → 우리 팀은 직접 책임자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 뒷 문장에 목적어가 없어 의미가 모호하다.

④ 그는 시화전을 홍보하는 일과 시화전의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X) → 시화전을 진행하는 일에 아주 열성적이다.

◆ 앞 뒤 문장의 호응이 맞지 않다. 더 자연스럽게 고치려면 중복되는 시화전을 하나 빼고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는 시화전의 홍보와 진행에 아주 열성적이다.

cf. 시화전: 시와 그림을 전시하는 전람회.

정답: ①

문 4. 다음 글의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4)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이나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 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이다. 빛 공해는 멜라토닌 부족을 초래해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 ①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빛 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자료를 인용하여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사례를 들어 빛 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4)

①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O)

◆ ‘빛 공해란 ~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로 보아 빛 공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② 빛 공해의 주요 요인인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X)

◆ 인공조명의 누출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자료를 인용하여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로 우리나라를 제시하고 있다.(O)

◆ ‘국제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의 ‘전 세계 빛 공해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빛 공해가 심각한 국가이다.’로 보아 적절하다.

④ 사례를 들어 빛 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O)

◆ ‘인간에게 수면 부족과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농작물의 생산량 저하,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로 보아 사례를 들어 빛 공해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문 5. ㉠, ㉡의 사례로 옳은 것만을 짝 지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5)

용언의 불규칙활용은 크게 ㉠어간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미만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 | | | |
|----------|--------|----------|---------|
| ㉠ | ㉡ | ㉠ | ㉡ |
| ① 걸음이 빠름 | 꽃이 노람 | ② 잔치를 치름 | 공부를 함 |
| ③ 라면이 불음 | 합격을 바람 | ④ 우물물을 푼 | 목적지에 이름 |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5)

① 걸음이 빠름 / 꽃이 노람

◆ ‘빠르다’는 ‘르’불규칙 용언으로 어간의 끝소리 ‘ㄹ’이 탈락하면서 ‘르’이 덧붙여지는 활용을 하여 ‘빠르다 - 빨라 - 빠르니’ 등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어간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이다.

◆ ‘노람다’는 ‘ㅎ’불규칙 용언으로 어간 ‘ㅎ’과 어미 ‘아’가 함께 바뀌어 ‘노래, 노라니, 노랑소’ 등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 둘 다 불규칙하게 바뀌는 부류이다.

② 잔치를 치름 공부를 함

◆ 치르다: ‘ㄹ’탈락: 모음 앞에서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규칙활용이다. < 예: 치르다 - 치러 / 담그다 - 담가 / 잠그다 - 잠가 >

◆ 하다: 하여, 하니 < 어미 ‘아’가 다른 것 ‘여’로 바뀌는 경우 / 어미가 바뀌는 ‘여’불규칙 용언 / 하 + 아 → 하여 >

문 7. 한자 표기가 옳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7)

- ① 그분은 냉혹한 현실(現實)을 잘 견뎌 냈다.
- ② 첫 손님을 야박(野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 ③ 그에게서 타고난 승부 근성(謹性)이 느껴진다.
- ④ 그는 평소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僱用)되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7)

① 그분은 냉혹한 현실(現實)을 잘 견뎌 냈다. (X) → 現實

◆ 現實(현실): 現(나타날 현) 實(열매 실, 이를 지)

◆ ‘現實(현실)’은 ‘現(나타날 현) 實(열매 실)’을 쓰는데, ‘實(열매 실)’에는 ‘貝(조개 패)’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법: 냉혹한 현실(現實)을 잘 견디려면 갯벌에서 **조개(貝: 조개 패)**라도 잘 먹어라.

cf. 現實: 없는 한자어임./室(집 실)

② 첫 손님을 야박(野薄)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O)

◆ 野薄(야박): 野(들 야) 薄(얇을 박)

◆ ‘野薄(야박)’은 ‘野(들 야) 薄(얇을 박)’을 쓰는데, ‘野(들 야)’에는 ‘里(마을 리)’가 들어가고 ‘薄(얇을 박)’에는 ‘艹(풀 초)’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법: 놀부 **마을(里: 마을 리)**은 **풀(艹: 풀 초)** 베는 걸 도와줘도 새참 한 번 주지 않아 인심이 **野薄(야박)**하다.

③ 그에게서 타고난 승부 근성(謹性)이 느껴진다. (X) → 根性(근성)

◆ 根性(근성): 根(뿌리 근) 性(성품 성)

◆ ‘根性(근성)’은 ‘根(뿌리 근) 性(성품 성)’을 쓰는데, ‘根(뿌리 근)’에는 ‘木(나무 목)’이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법: **나무(木: 나무 목)**는 **根性(근성)**이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곳곳이 서서 잔다.

cf. 謹性: 없는 한자어임./謹(삼갈 근)

④ 그는 평소 희망했던 기관에 채용(僱用)되었다. (X) → 採用(채용)

◆ 採用(채용): 採(깎 채/풍채 채) 用(쓸 용)

◆ 採用(채용)은 ‘採(깎 채/풍채 채) 用(쓸 용)’을 쓰는데, ‘採(깎 채/풍채 채)’에는 ‘扌(손 수)’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법: 직원을 **採用(채용)**할 때 **손(扌: 손 수)**을 보고 쓸(用: 쓸 용) 데가 있는 지 보다.

정답: ②

문 8. 다음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8)

· 사회자: 오늘의 토의 주제는 ‘통일 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입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서 ‘남북한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최 교수: 남한과 북한의 말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가 대표적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략)… 앞으로도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이로써 최 교수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 박사의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 정 박사: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언어의 다른 점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로 구성된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공통의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을 만들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 사회자: 그러면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중 A: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언어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①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청중 A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8)

- ①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O)
 ◆ ‘오늘의 토의 주제는 ‘통일 시대의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입니다. 먼저 최○○ 교수님께서 ‘남북한 언어 차이와 의사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로 보아 학술적인 주제에 대해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발표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X)
 ◆ 사회자는 발표자의 발표만 유도할 뿐 이견을 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발표자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O)
 ◆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 언어의 다른 점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로 구성된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에서는 남북한 공통의 사전인 『겨레말큰사전』을 만들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로 보아 발표자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 청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청중 A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O)
 ◆ ‘남북한 언어의 차이와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언어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로 보아 청중 A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문 9. ㉠~㉣은 '공손하게 말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을 적용한 B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9)

- ㉠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
- ㉡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
- ㉢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
- ㉣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 ① ㉠ A: “이번에 제출한 디자인 시안 정말 멋있었어.”
B: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② ㉡ A: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B: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 ③ ㉢ A: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 가니?”
B: “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 크게 말해 줄래?”
- ④ ㉣ A: “가원아, 경희 생일 선물로 귀걸이를 사주는 것은 어때?”
B: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경희의 취향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9)

◆ 공손성의 원리: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중시하는 이론

- 1) 요령의 격률: 상대방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2) 관용의 격률: 말하는 사람의 혜택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3) 찬동의 격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4) 겸양의 격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상대방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 >
- 5) 동意的 격률: 화자와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고 의견 일치율을 극대화하여 말하는 것.

- ㉠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해야 한다.(겸양의 격률)
- ㉡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해야 한다.(요령의 격률)
- ㉢ 상대방이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해야 한다.(관용의 격률)
- ㉣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동意的 격률)

- ① ㉠ A: “이번에 제출한 디자인 시안 정말 멋있었어.”
B: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B가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인 겸양의 격률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다.

② ㉠ A: “미안해요. 생각보다 길이 많이 막혀서 늦었어요.”

B: “괜찮아요. 쇼핑하면서 기다리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 B가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말하고 있으므로 ㉠인 요령의 격률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다.

③ ㉡ A: “혹시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 가니?”

B: “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 크게 말해 줄래?”

◆ 상대방의 목소리가 작아 내용이 잘 안 들렸다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공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안을 주고 있다.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B에게 이렇게 말해 보라. 어찌면 좋니. 너 우리 할아버지 보청기 두 개 있는데 하나 싸게 줄 테니 해볼래? 농담입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조금이라도 웃어 봐요.ㅋㅋ

④ ㉢ A: “가원아, 경희 생일 선물로 귀걸이를 사주는 것은 어때?”

B: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경희의 취향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귀걸이 대신 책을 선물하는 게 어떨까?”

◆ B가 상대방의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므로 ㉢인 동의의 격률이 잘 적용되었다.

정답: ③

문 10. 하버마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0)

하버마스는 18세기부터 현대까지 미디어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공공 영역의 부상과 쇠퇴를 추적했다. 하버마스에게 공공 영역은 일반적 쟁점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형성하는 공공 토론의 민주적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하버마스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 도시의 살롱에서 당시의 공공 영역을 찾았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만이 살롱 토론 문화에 참여했으나, 공공 토론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를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롱이 초기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적어도 살롱 문화의 원칙에서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 영역은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민주적 토론은 문화 산업의 발달과 함께 퇴보했다.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은 공공 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상업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되었다. 공공 여론은 개방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 많은 것을 약속한 미디어는 이제 민주주의 문제의 일부로 변해 버린 것이다.

- ①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허용 되지 않았다.
- ②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도 증가시켰다.
- ③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 ④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0)

- ①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허용 되지 않았다.(X)
 ◆ 살롱 문화에서 특정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살롱 문화의 원칙에서 공개적 토론을 위한 공공 영역은 각각의 참석자들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로 보아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었으니 서로 비판적이든 우호적이든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도 증가시켰다.(X)
 ◆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은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공익 광고도 증가시켰다는 것은 하버마스의 주장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상업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우선하게 되었다. 공공 여론은 개방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광고에서처럼 조작과 통제를 통해 형성되고 있다.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로 보아 오히려 상업적 광고가 증가하면 할수록 공익 광고는 줄어든다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더라도 국제 사회의 공공 영역은 공허해지지 않는다.(X)
 ◆ ‘대중매체와 대중오락의 보급은 공공 영역이 공허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로 보아 글로벌 미디어가 발달하면 국제 사회의 공공 영역은 공허해진다는 게 적절하다.

④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O)
 ◆ ‘미디어가 점차 상업화되면서 하버마스가 주장한 대로 공공 영역이 침식당하고 있다. 상업화된 미디어는 광고 수입에 기대어 높은 시청률과 수익을 보장하는 콘텐츠 제작만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적 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논의와 소통의 장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공공 영역이 축소되었다.’로 보아 수익성 위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가 더 많아지면서 민주적 토론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문 11.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1)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 그런데 눈은 한 시간 안에 5 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 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 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이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1)

③ ㉠ - ㉡ - ㉢ - ㉣ - ㉤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 이때 대설의 기준으로 주의보는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 cm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 또한, 경보는 24시간 신적설이 20 cm 이상 예상될 때이다.
㉢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 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 그런데 눈은 한 시간 안에 5 cm 이상 쌓일 수 있어 순식간에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운송, 유통, 관광, 보험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폭설, 즉 대설이란 많은 눈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로 보아 먼저 시간적으로 ㉠이 먼저 오고 ‘또한’으로 보아 ㉡이 뒤에 온다. 그 다음 공간적으로 ㉢이 온다. ‘그런데’로 보아 전환되면 문장 ㉣이 오고 도심 교통마비에 추가하여 ㉤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서는 ㉠ - ㉡ - ㉢ - ㉣ - ㉤

정답: ③

문 12. 다음 글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2)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 것은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발달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 ① 영어의 ‘쌀(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
- ②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
- ③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도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
- ④ 우리나라는 수박(watermelon)은 ‘박’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melon)’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2)

① 영어의 ‘쌀(rice)’에 해당하는 우리말에는 ‘모’, ‘벼’, ‘쌀’, ‘밥’ 등이 있다.(O)
◆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로 보아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고 주식인 쌀이 중요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를 반영하여 쌀에 대한 언어가 분화되었다.

② 어떤 사람은 산도 파랗다고 하고, 물도 파랗다고 하고,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파랗다고 한다.(O)

◆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반영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고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산이 녹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파랗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바닷가의 물도 하늘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파랗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보행 신호의 녹색등도 녹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파랗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 언어와 사고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사물의 개념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도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다.(X)

◆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그 명칭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제시문과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우리나라는 수박(watermelon)은 ‘박’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melon)’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O)

◆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로 보아 우리나라는 수박(watermelon)은 ‘박’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떤 나라는 ‘멜론(melon)’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간마다 사고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문 13.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3)

변지의가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그 뜻을 물었더니, 문장 공부를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때마침 이날 우리 아이들이 나무를 심었기에 그 나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나무를 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뿌리를 북돋우고 줄기를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한다. …(중략)…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 주듯 진실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쏟고, 줄기를 바로잡듯 부지런히 실천하며 수양하고, 진액이 오르듯 독서에 힘쓰고, 가지와 잎이 돌아나듯 널리 보고 들으며 두루 돌아다녀야 한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을 헤아려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글이요,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문장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서사 ② 분류 ③ 비유 ④ 대조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3)

- ① 서사(敍事):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
 ② 분류(分類): 종류에 따라서 가름. ‘나눔’으로 순화. / 유개념의 외연에 포함된 총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③ 비유(比喩/譬喩):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로 보아 글을 쓰는 것을 나무에 꽃이 피는 것에 비유하였다.

④ 대조(對照):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

정답: ③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4)

언어마다 고유의 표기 체계가 있는데, 이는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다. 이 두 언어의 사용자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더라도 보자마자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영어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은 언어이다.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은 편이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 한편 알파벳 언어를 읽을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유사 하지만 뇌의 부위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하는 반면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음운 처리에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한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규칙적인 음운 처리 규칙을 적용하는 반면에,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해 둔 수많은 예외들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 ①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②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
- ③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
- ④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4)

① 알파벳 언어의 철자 읽기는 소리와 표기의 대응과 관련되는데,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은 철자 읽기의 명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X)

◆ ‘알파벳 언어는 표기 체계에 따라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로 보아 각 소리가 지닌 특성이 아니라 알파벳 언어의 표기 체계가 철자 읽기의 명료성 수준이 달라진다고 해야 더 적절하다.

②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O)

◆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은 동일하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하지만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영어를 읽는 사람은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 의존’으로 보아 영어 사용자는 무의미한 단어를 읽을 때 좌반구의 읽기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암기된 단어의 인출과 연관된 뇌 부위에 더욱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O)

◆ ‘철자 읽기가 명료하다는 것은 한 글자에 대응되는 소리가 규칙적이어서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거의 일대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가 있다.’로 보아 이탈리아어는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이어서 낯선 단어를 발음할 때 영어에 비해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다.(O)

◆ ‘이에 비해 영어는 철자 읽기의 명료성이 낮은 언어이다. 영어는 발음이 아예 나지 않는 묵음과 같은 예외도 많은 편이고 글자에 대응하는 소리도 매우 다양하다.’로 보아 영어는 음운 처리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아서 스페인어에 비해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덜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문 15. (가)~(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5)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 다

유자 안이라도 품엄즉도 흐 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새 글노 설워흐 느 이다

(나) 동짓들 기 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다)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이오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 업슨 이 몸이 분별 업시 늘그리라

(라) 농암(籠巖)에 올라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인사(人事)이 변흔들 산천이썩 가 썰가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 某丘)이 어제 본 듯흐 예 라

① (가)는 고사의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의태적 심상을 통해 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 (라)는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5)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 다 < 반중 조홍감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
유자 안이라도 품엄죽도 허 다마는 <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는 >
폼어 가 반길리 업슬새 글노 설워허 느 이다 < 폼어 가 반길 사람 없으니 글로 서러워하노라, >

① (가)는 고사의 인용을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O)

◆ 이 작품은 박인로의 시조 『조홍시가』로, 회굴 고사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관련 고사 성어는 풍수지탄(風樹之嘆)이다.

◆ 조홍시가: 조선 선조 때 박인로가 지은 연시조. 도체찰사로서 영천에 머물러 있던 이덕형이 보낸 홍시를 보고, 육적(陸績)의 회굴(懷橘) 고사를 연상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었다고 한다. 모두 네 수로 되어 있다.

◆ 회굴(懷橘): 품을 회, 굴 굴/귤을 품속에 품는다는 의미로,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나타내는 말.

◆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나)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 춘풍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정든 임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퍼리라, >

② (나)는 의태적 심상을 통해 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O)

◆ 이 작품은 황진이 시조로 ‘서리서리, 구뵈구뵈’의 의태적 심상을 통해 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의태(擬態): 어떤 모양이나 동작을 본떠서 흉내 냄.

◆ 서리서리: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헝클어지지 아니하도록 동그렇게 포개어 감아 놓은 모양

◆ 굽이굽이: 여러 굽이로 구부러지는 모양.

(다)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로다 < 말 없는 청산이오, 태 없는 유수로다 >

갓 업슨 청풍(靑風)이오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 갓없는 청풍이오, 입자 없는 명월이라 >

이 중에 병 업슨 이 몸이 분별 업시 늘그리라 <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걱정 없이 늙으리라, >

③ (다)는 대구와 반복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O)

◆ 이 작품은 성혼의 시조로, 대구(~이오, ~로다)와 반복(업슨)을 통해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대구(對句):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 지은 둘 이상의 글귀. 특히 한시를 비롯한 시가 문장에 많이 쓴다.

(라) 농암(籠巖)에 올라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이로다 < 농암에 올라보니 노안인데도 잘 보이는구나 >

인사(人事)이 변흔들 산천이췌 가 셤가 < 인간 세상이 변한다고 한들 자연조차 변하겠는가 >

암전(巖前)에 모수 모구(某水 某丘)이 어제 본 듯허 예 라 < 바위 앞에 어떠한 물이나 어떠한 언덕도 어제 본 듯하구나 >

④ (라)는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다.(X)

◆ 이 작품은 조선 중종 때에, 농암 이현보가 지은 시조인 이현보의 『농암가』로, 자연과의 대조를 통해 허약해진 노년의 무력함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향인 농암에 올라 언제나 봐도 변함없는 자연을 노래하고 있다.

정답: ④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6)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겸허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하였으리라. 그러나 오 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큼털털한 반소화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 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 이상, 권태 에서 -

- ① 대상의 행위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글쓴이의 처지를 후회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글쓴이의 무료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어조로 표출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6)

◆ 이상의 권태(倦怠): 이상이 지은 수필. 개를 중심 소재로 하여 여름날의 권태로운 시골 풍경을 역설, 풍자, 반어 따위의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① 대상의 행위를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다.(O)

◆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큼털털한 반소화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로 보아 위 제시된 부분은 소가 반추하는 모습을 통해 글쓴이의 심리가 투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글쓴이의 처지를 후회하고 있다.(X)

◆ 제시된 글에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글쓴이의 처지를 후회하는 부분은 알 수 없다.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글쓴이의 무료함을 표현하고 있다.(X)

◆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 가 누워도 좋다.’로 보아 공간은 풀밭이나 공간의 이동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④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어조로 표출되고 있다.(X)

◆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불만이 반성적 어조로 표출되어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①

문 17. 다음 글에서 ‘황거칠’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7)

황거칠 씨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일어섰다. “이 개 같은 놈들아, 어쩌면 남이 먹는 식수까지 끊으려노?” 그는 미친 듯이 우르르 달려가서 한 인부의 깡이를 억지로 잡아서 저만큼 내동댕이쳤다. …(중략)… 경찰은 발포를 - 다행히 공포였지만 - 해서 겨우 군중을 해산시키고, 황거칠 씨와 청년 다섯 명을 연행해 갔다. 물론 강제집행도 일시 중단되었었다. 경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밤에도 풀려나오지 못했다. 공무집행 방해에 에다, 산주의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폭행죄 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도 풀려 나오질 못했다. 쌍말로 썩어 갔다. 황거칠 씨는 모든 죄를 자기가 안아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면회를 오는 가족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자, 황거칠 씨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만부득이 담당 경사의 타협안에 도장을 찍기로 했다. 석방의 조건으로서, 다시는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이리하여 황거칠 씨는 애써 만든 산수도를 포기하게 되고 ‘마삿등’은 한때 도로 물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 김정한, 「산거족」에서 -

- ① 同病相憐 ② 束手無策 ③ 自家撞着 ④ 輾轉反側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7)

◆ 이 작품은 김정한의 「산거족(山居族)」(1971)으로 노인 황거칠이 자기 마을의 식수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① 同病相憐(동병상련): 同(한가지 동) 病(병 병) 相(서로 상) 憐(불쌍히 여길 련(연))

1)의미: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 유의어 < 동기상구, 동성상응, 동주상구, 양과분비, 유유상종, 초록동색 >

1)同氣相求(동기상구): 同(한가지 동) 氣(기운 기) 相(서로 상) 求(구할 구)

a)의미: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2)同聲相應(동성상응): 同(한가지 동) 聲(소리 성) 相(서로 상) 應(응할 응)

a)의미: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울린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3)同舟相救(동주상구): 同(한가지 동) 舟(배 주) 相(서로 상) 救(구원할 구)

a)의미: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같은 운명이나 처지에 놓이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서로 돕게 됨을 이르는 말.

4)兩寡分悲(양과분비): 兩(두 양(량), 낭 양(낭)) 寡(적을 과) 分(나눌 분) 悲(슬플 비)

a)의미: 두 과부가 슬픔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함을 이르는 말.

5) 類類相從(유유상종): 類(무리 유(류)) 類(무리 유(류)) 相(서로 상) 從(좃을 종)

a)의미: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

6) 草綠同色(초록동색): 草(풀 초) 綠(푸를 록(녹)) 同(한가지 동) 色(빛 색)

a)의미: 풀빛과 녹색(綠色)은 같은 빛깔이란 의미로 비슷한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은 서로 어울린다는 말.

② 束手無策(속수무책): 束(묶을 속/약속할 속) 手(손 수) 無(없을 무) 策(꾀 책/채찍 책)

1) 의미: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

③ 自家撞着(자가당착): 自(스스로 자) 家(집 가) 撞(칠 당) 着(붙을 착).

1)의미: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

* **유의어 < 자기모순, 이율배반, 연목구어, 육지행선 >**

1) 自己矛盾(자기모순): 自(스스로 자) 己(몸 기) 矛(창 모) 盾(방패 순)

a)의미: 스스로의 생각이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아니함. 자기 자신의 정립에 대하여 동시에 그것을 폐기·부정하는 작용이 동일한 주체에 갖추어져 있는 일을 이른다.

2) 二律背反(이율배반): 二(두 이) 律(법칙 율(률)) 背(등 배/배반할 배) 反(돌이킬 반).

a)의미: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 칸트에 의하여 널리 쓰이게 된 용어로 세계를 인식 능력에서 독립된 완결적 전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성(이성)은 필연적으로 이율배반에 빠진다고 한다.

3) 緣木求魚(연목구어): 緣(인연 연) 木(나무 목) 求(구할 구) 魚(물고기 어)

a)의미: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 陸地行船(육지행선): 陸(물 육(륙)) 地(땅 지) 行(다닐 행) 船(배 선)

a)의미: 육지에서 배를 저으려 한다는 뜻으로, 안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輾轉反側(전전반측): 輾(돌아누울 전) 轉(구를 전) 反(돌이킬 반) 側(곁 측)

1)의미: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 **유의어 < 오매불망, 오매사복, 전전불매 >**

1) 오매불망(寤寐不忘): 寤(잠 깰 오) 寐(잘 매) 不(아닐 불) 忘(잊을 망)

a)의미: 자나 깨나 잊지 못함.

2) 寤寐思服(오매사복): 寤(잠 깰 오) 寐(잘 매) 思(생각 사) 服(옷 복)

a)의미: 자나 깨나 늘 생각함.

3) 輾轉不寐(전전불매): 輾(돌아누울 전) 轉(구를 전) 不(아닐 불), 寐(잘 매)

a)의미: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정답: ②

문 18.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8)

살아가노라면

가슴 아픈 일 한두 가지겠는가

깊은 곳에 뿌리를 감추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

그걸 사는 거다

봄, 여름, 가을, 긴 겨울을

높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쉬임 없이

한결같이

사노라면

가슴 상하는 일 한두 가지겠는가

- 조병화, 「나무의 철학」 -

- ① 문답법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8)

① 문답법을 통해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X)

◆ 문답법이 아니라 설의법(~가지겠는가)이 쓰였고 과거의 삶을 반추하고 있지는 않다.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X)

◆ 반어적 표현과 슬픔의 정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③ 사물을 의인화하여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X)

◆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사는 나무처럼’으로 보아 나무를 의인화하였지만 현실을 목가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목가적(牧歌的):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또는 그런 것.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O)

◆ ‘~가지겠는가’로 보아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살아가면서 가슴 아프고 상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나무처럼 사시사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문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9)

한 민족이 지닌 문화재는 그 민족 역사의 누적일 뿐 아니라 그 누적된 민족사의 정수로써 이루어진 혼의 상징이니, 진실로 살아 있는 민족적 신상(神像)은 이를 두고 달리 없을 것이다. 더구나 국보로 선정된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성력(誠力)과 정혼(精魂)의 결정으로 그 우수한 질과 희귀한 양에서無比(無比)의 보(寶)가 된 자이다. 그러므로 국보 문화재는 곧 민족 전체의 것이요, 민족을 결속하는 정신적 유대로서 민족의 힘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도 그 과거 문화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요, (㉠)는 말도 국보 문화재가 얼마나 힘 있는가를 밝힌 예증이 된다.

- 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 ②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 ③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
- ④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19)

- 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
- ② 지식은 나눌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 수 없다: 지식은 책이나 교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자기 스스로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함.
- ③ 사람은 겪어 보아야 알고 물은 건너 보아야 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겉으로 언뜻 보아서는 알 수 없으며 함께 오랫동안 지내보아야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 <동의 속담>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 ‘사람을 알자면 하루 길을 같이 가보라’ ‘천 길 물속은 건너보아야 알고 한 길 사람 속은 지내보아야 안다’

④ 그 무엇을 내놓는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는 바꾸지 않는다(O)

‘국보로 선정된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성력(誠力)과 정혼(精魂)의 결정으로 그 우수한 질과 희귀한 양에서無比(無比)의 보(寶)가 된 자이다. 그러므로 국보 문화재는 곧 민족 전체의 것이요, 민족을 결속하는 정신적 유대로서 민족의 힘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로 보아 영국의 국보 문화재인 셰익스피어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정답: ④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20)

과학의 개념은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정량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학과 동물학의 종, 속, 목처럼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들을 분류하는 개념들이 분류 개념이다. 어린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인 ‘사과’, ‘개’, ‘나무’ 같은 것 역시 분류 개념인데,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 또한,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이마에 뿔이 달린 말의 일종임’ 같은 분명한 정의가 있기에 ‘유니콘’은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더 무거움’, ‘더 짧음’ 등과 같은 비교 개념은 분류 개념보다 설명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분류 개념처럼 자연의 사실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분류 개념과 달리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상 A의 무게가 대상 B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면, 대상 B의 무게가 대상 A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더 무거움’ 같은 비교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량 개념은 비교 개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인데, 이것은 자연의 사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에는 두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험적 규칙과 물리량의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량 개념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정량 개념은 과학의 언어를 수많은 비교 개념 대신 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 ①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
- ② ‘용(龍)’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
- ③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정답 및 해설 (2021년 국가직9급 나책형 문20)

① ‘호랑나비’는 ‘나비’와 동일한 종에 속하지만, 나비에 비해 정보량이 적다.(X)

◆ ‘하위 개념으로 분류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전달된다.’로 보아 호랑나비는 나비의 하위 개념이므로 나비에 비해 정보가 더 많다고 하는 게 적절하다.

② ‘용(龍)’은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된다.(O)

◆ ‘현실 세계에 적용 대상이 하나도 없는 분류 개념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니콘’이라는 개념은 ‘이마에 뿔이 달린 말의 일종임’ 같은 분명한 정의가 있기에 ‘유니콘’은 분류 개념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로 보아 ‘용(龍)’과 같이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시물이 없더라도 분류 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개념은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O)

◆ ‘어린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인 ‘사과’, ‘개’, ‘나무’ 같은 것 역시 분류 개념인데, ~ ‘더 무거움’, ‘더 짧음’ 등과 같은 비교 개념은 분류 개념보다 설명에 있어서 정보 전달에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분류 개념처럼 자연의 사실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분류 개념과 달리 논리적 관계도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로 보아 ‘꽃’이나 ‘고양이’와 같은 분류 개념은 ‘더 무거움’, ‘더 짧음’ 등의 비교 개념처럼 논리적 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④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O)

◆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한데, 그 규칙에는 두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험적 규칙과 물리량의 측정 단위를 정하는 규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량 개념은 자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정량 개념은 과학의 언어를 수많은 비교 개념 대신 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로 보아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cm’나 ‘kg’과 같은 측정 단위는 자연현상에 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 영보이 저서 -

- ◆ 2021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판매 중 >
- ★ 2021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성어 편” < 판매 중 >
- ◆ 2021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판매 중 >
- ◆ 2020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합격노트” < 판매 중 >
- ◆ 2020영보이 공무원 고사성어(故事成語) “합격노트” < 판매 중 >
- ㅈ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ㅈ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22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22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22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